

제 42 호

연중제 24 주일
(강림 후 14)

1973. 9. 16

순교정신

| | |
|-----|-------|
| 발행인 | 김 영 일 |
| 인쇄인 | 범 석 규 |
| 주 간 | 조 성 호 |
| 편 집 | 한 상 갑 |

[강 료]

순교정신을 발휘합시다

안 복 진 신부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공식 석상에서 「가톨릭은 모름지기 현대의 죄악과 모든 부도덕을 거슬러 참된 윤리 재건을 위한 발언을 해야 한다」고 설파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생소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일 강론에서 수 없이, 키가 아프도록, 매번 같은 소리, 짜증이 나도록 들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하고, 해야만 하는가? 이는 순교 역사를 자랑하는 가톨릭이 오늘에 와서 사회 부도덕과 대결하여 순교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진리를 위해 십자가에 정사(釘死)하시었고, 그의 제자들도 인간의 참된 길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들 생명을 바치므로써 그들의 정의와 진리를 증명하셨거늘, 우리는 왜 부도덕적인 죄악에 대항하여 과감한 투쟁을 못합니까?

친애하는 교형 여러분! 선과 악의 투쟁에서 선은 한 걸음도 양보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체면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세속에 헐값으로 팔아 넘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살기 위해 윤리를 버릴 수 없고, 우리는 현세를 위해 천상 계시 진리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 가톨릭 신자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하며, 세상의 암흑과 마음의 어둠을 밝힐 빛이 되어 소금담고 빛답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악의 세력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강력한 신앙에 바탕을 두고 악을 거스르는데 과감해야 하겠습니다. 혼하는 선과 악의 대결에서 그레샴(GRESHAM)법칙이 그대로 재현되어 선이 악의 그늘속에 묻혀 버리는 수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너나 하나 할것 없이 비가톨릭인 앞에서, 아니 웬사람 앞에서 가톨릭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가톨릭인의 신념과 인생관을 드러내지 못하며 그들과 타협해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인이면서 때로는 무신론자가 되며, 때로는 정의의 심판도 없는 것처럼 사회적인 부정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가늠하지 못하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구원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한 구성요원으로서 사회정화와 구원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를 회생시키면서까지 인류 구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비오 12세께서는 박해를 두려워 말고 있는 군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박해를 주심으로써 오늘날의 인류를 구할지 모르니, 즐거이 박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한바 있습니다.

「환말이 썩어서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인류사회의 정화를 위해 우리 다같이 순교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중앙성당 주임신부)

이주일의 미사

□임당송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에게, 주여, 평화를 주소서. 이에 당신 예언자들의 진실함이 드러나리이다. 당신의 중, 이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1독서 (이사 50 ; 5-9, 경향잡지 9월호 P.)
내 몸을 박해자들에게 내 주었노라.

□송계송 ◎나는 거닐으리라. 주님앞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닐으리라.

주님을 나는 사랑하노라. 당신은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소고, 내 당신을 부르던 날 당신의귀를 기울여 주셨음이다.

□제2독서 (야고보 2 ; 14-18, 성서 P. 523)

신앙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로써 세상이 내게 대해주었음이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8 ; 27-35, 성서 P. 95)

당신은 그리스도시도다.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리라.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당신에게 1년간의 결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년동안 사도회의 책임을 맡아 애쓴 그들에게 엄한 심판보다는 따뜻한 위로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진리의 성신이여, 새로 뽑히울 사도회 임원들에게 진리를 위한 용덕과 총명한 지혜를 증만하 부어주소서◎

3.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신이여, 지난 1년간 우리들이 너무나 무심하게 대했던 교회 살림에 관심을 갖게하사, 한해를 청산하는 이 9월에 교회의 모든 운영이 원활히 되게 인도주소서. ◎

+ 주여 비오시, 위대한 순교 복자들을 모신 우리들의 영광이 헛되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너무나 태만한 우리들의 진심 생활에 불을 붙여주소서 우리들도 진리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게 인도주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감사드리며 마시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이요, 이 빵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이어라.

* 이 주간의 성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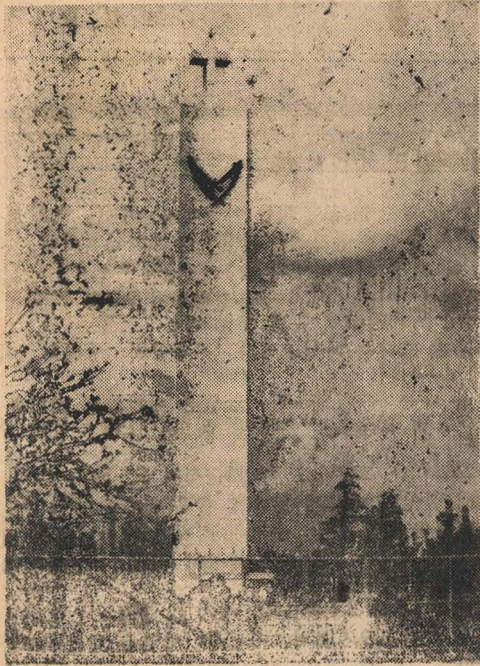
- 17(월) 독서 (다모테오 전서 2 ; 1-8 성서 P.476)
복음 (루 가 7 ; 1-10. 성서 P.141)
- 18(화) 독서 (다모테오 전서 3 ; 1-13. 성서 P.477)
복음 (루 가 7 ; 11-17. 성서 P.142)
- 19(수) 독서 (다모테오 전서 3 ; 14-16. 성서 P.478)
복음 (루 가 7 ; 31-35. 성서 P.144)
- 20(목) 독서 (다모테오 전서 4 ; 12-16. 성서 P.479)
복음 (루 가 7 : 36-50. 성서 P.144)
- 21(금) ※ 성 마태오 차도 복음 사가
독서 (에 페 소 4 ; 1-7, 11-13 성서 P.441)
복음 (마 태 오 9 ; 1-13. 성서 P.18)
- 22(토) 독서 (다모테오 전서 6 ; 13-16 성서 P.482)
복음 (루 가 8 ; 4-15. 성서 P.145)

□대화의 광장□

□복자성일□

전주는 순교성지중 가장 유명한 고장

김 영 구 신부



1784년 한국 천주교가 이승훈(李承薰)베드로를 통하여 처음 들어오게 되자 <한국의 안티오키아>란 저 양근(楊根) 땅으로부터 전주초남(全州初南)의 아우구스티노 유허검(柳恒儉)을 통하여 일직 복음의 씨가 이 고장에 전해져 남한 일대 교회의 주석(柱石)으로 다져졌다. 또한 전 한국 가톨릭의 첫 순교자 두 형제의 처음 흘린 피의 세례로 4천년 악마의 소굴이던 이 한국 땅을 끝까지 물들여 천주께 축별(祝別)한 곳이 바로 여기며, 동정부부 순교자를 낸 곳도 여기며, 또 다른 수 많은 순교자도 있지만 이봉금(李鳳金)이나다시아같은 순교자를 낸 곳이 역시 여기이다. 그들이 복자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우리의 후손담겨 못한 인위적 불찰이다.

- 여러가지 독특한 영예와 자랑거리로 손꼽을만한일은 ;
- 1) 전 한국 교회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첫 참수 치명(斬首致命)의 두형제의 순교사실
 - 2) 전 한국 교회사에 처음보는 동정부부의 결백하고 아름다운 한쌍의 백합화
 - 3) 전 한국 교회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 어린 아가씨의 영웅적 순교사실

첫째 사실로 말하면 신해년 (1791년12월8일 오후 3시)에 전주서 참수 치명한 박오로 윤지충(尹持忠)과 야고버 권상연(權尙然) 내외종(內外從) 두분 형제의 순교로써 한국 땅을 씻고 거름주어 <순교자의 피로 신자의 씨>를 모부어 놓은 사실이다.

이 나라에 복음의 씨가 처음 뿌려지던 바로 그 이듬해에 (1785)에 저 김범우(金範禹)도마는 형조판서 김화진(金華鎭)에게 잡혀서 모친 혹형과 고문을 겪은후 단양 땅에 유배된지 수개월 후에 그 혹형의 여독으로 끝까지 신중 한 일은 있으나 이것은 왕명도 아니었고 참수치명도 아니었다.

진사(進士)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야말로 바로 서술이 푸르른 국왕의 정식 사형연도로 (후에 국왕은 사형연도를 유배형으로 바꾸었으나 때는 이미 늦어 그 사형집행 이후에야 감형령이 당도했음) 순교했을뿐 아니라, 감형 후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 순교사실은 주문모(周文謨)신부님에 의해 북경의 알렉산델 더 구베아 주교께 알려졌고 순교자의 피묻은 수건까지 보내어졌다.

여기 특기할 것은 그당시 한국사회에서 중대시된문제, 천주교 신자들을 불충불효(不忠不孝), 또는 무군무부(無君無父)로 몰아 대며 오랫동안 그 무서운 박해의 구실(口實)과 동기가 되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이른바 조상에 대한 제사문제)

이 두형제는 이벽 이승훈과 반대로 효도 때문에 더욱 용맹히 순교했던 것이다. 이들의 모친은 임종시에 “나 죽거든 내 장례식은 천주제명에 어긋나는 여하한 이단도, 미신의 행사도 일절 쉬지 말고 <신주>나 <제사>도 단연 물리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선종했다. 때문에 어님께 순종하는 그 지극한 효성에서 그 모든 이단행사를 거절하고, 죽기까지 용감히 모든 혹형과 참수형까지 감수하면서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천주님 사랑으로 불는 불위에 기름을 끼얹은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던 것이다.

이때 윤지충의 나이는 33세, 권상연은 41세였다. (전주시 교동 1가 132-4)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제과 ⑤011 찻집 ⑤013

개업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찻집 *

*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원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 T V
 { 냉 장 고
 { 석 유 스토브

전주 극장 동편입구

전 화 ②8121

여 요 섭(운항)

□ 양지쪽 □



선 물

「보내어 온 모든 선물은, 가령 사소한 것일지라도 만약 애정으로 보내어 온 것이라면 그 진가는 큰 것이다.」-벤다.

옛그제 중추절을 지냈다. 명절이 닥치면 항상 선물꾸러미들이 거창하게 오고간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단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행정당국에서는 국민들을 선도하는 뜻으로 간소하게 수석을 보내자고 우리들을 일깨워 냈다. 그런데도, 불행스럽게, 그런소리를 목이 아프게 외쳐낸 그들이 그 반대의 시범을 보여준성 싶다. 초록색의 넘버를 단 차량들은 마치 구호물자 배급주듯이 선물들을 상납(上納)하고 다녔다. 심지어는 영업용 택시를 대절해서까지라도 선물 배급에 철저하게 앞장을 선 모양이다.

(여기서, 이 귀중한 지면을 빌어서; 그분들과 시비를 가리자거나, 그분들을 헐뜯는 일에 열을 올리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어떠한 모습을 떠던지, 선물이라면 그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물이 품고 있는 그 분의 마음 가짐이 중요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순박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감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그 감을 따서 감이 없는 집과 나누어 먹곤 했다. 그 몇알의 감이야말로 따뜻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런 타의(他意)없이 서로서로 있는 것들을 나누어 먹던 아름다운 풍습을 우리네 할아버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순박한 정으로 선물을 서로 나누는게 아니라, 순전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야말로 상납을 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어른치고 그 아랫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거의 없다. 의례히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오히려 윗사람들은, 제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간의 보너스 조차 자기의 무엇주듯이 큰 생색을 내기도 한다.

상전이 배부르면 중놈 배고픈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다. 아랫 사람이야 어찌되던 우선 제배만 차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게 오늘의 세태이다.

누구의 명함과 함께 배달된 선물이 크고 값진가만을 기억하려 드는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명함을 되려 보내지 않은 아랫사람에게는 항상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그것이 말이다.

정의와 평화,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들 하느님의 백성단체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다. 앞에서 살펴본 현실들의 예외인가? 딱히 그렇다고만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느님의 섭리(攝理), 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위에서 부터 아래로 흐르는 사랑의 표양없이 입에서 쏟아지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만으로 현대인들은 배부르지 아니한다. 항상 갈증을 느끼기에 그들은 방향감각없이 헤매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글속에만 묻어두고, 입으로만 외우지 말자. (갑)

요십이 (9) 김병오



더위에 건강 하십시오
성 바오로 서원

소리 소리 소 리 소리

●〈소리〉란 귀를 자극하여 청각을 일으키는 물리적 배상이다. 이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생기기며 음파가 되어 퍼진다. (국어사전에서 살펴본 뜻풀이)

이 소리는〈말씀〉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하나, 때에 따라서는 울리는 꿩과리마냥 시끄럽기만 하기도하다.

●금주부터 〈중성이〉지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발성(發聲)하기로 했다.

그렇다고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자 함(率口而發)도 아니요, 감언이설(甘言利說)을 하하고자 함

은 더욱 아니다. 오직 말이라는 것은 수능은비단과 같아서 펼치면 모든무늬가 나타나지만, 접으면 무늬가 감추어지는 동시에또한 소용없게 되는 것(플루타아크 영웅전)이기 때문이다.

●추석 성묘길에 교회 공동묘지를 찾은 사람은 누구나 한가지로 느꼈을 것이다. 잘 꾸며는 신통동묘지 하며 말끔하게 벌초한 일이라든가 모두 흐뭇하기만 했을 것이다

헌데 한가지 섭섭한 일은 신통동묘지에 덩그렇게 누어 계시는 세분 신부님들의 묘소이다. 혼한 비석 하나없이 나무 십자가가 어찌면 그리 올찌느스러울까? 글씨마저 지워진 이현석 신부님 묘소는 더욱 더하고.

어떻게 된 일일까? 그대로 좋은가?

각종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냉방 시설 완비

미미 제과소

전화 ② 6589

(미미사장 ②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옆)

김민주 (가타리나)

고급찻집. 경쾌한음악. 냉온방시설

(신장개업)

새로운

남문다실

남문여관 지하실 직통 ② 4881

교환 ② 2169 5017

